

출장결과보고
2009. 3.

“경상북도 해외농업개발 추진방향 연구”

아시아농업연구센터
글로벌협력연구센터

1. 출장목적

- 가. 캄보디아 옥수수 및 타피오카 농장 견학
- 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농업현황, 농업정책, 관련 법률 및 제도 자료 수집
- 다. 기 진출 농장 사례 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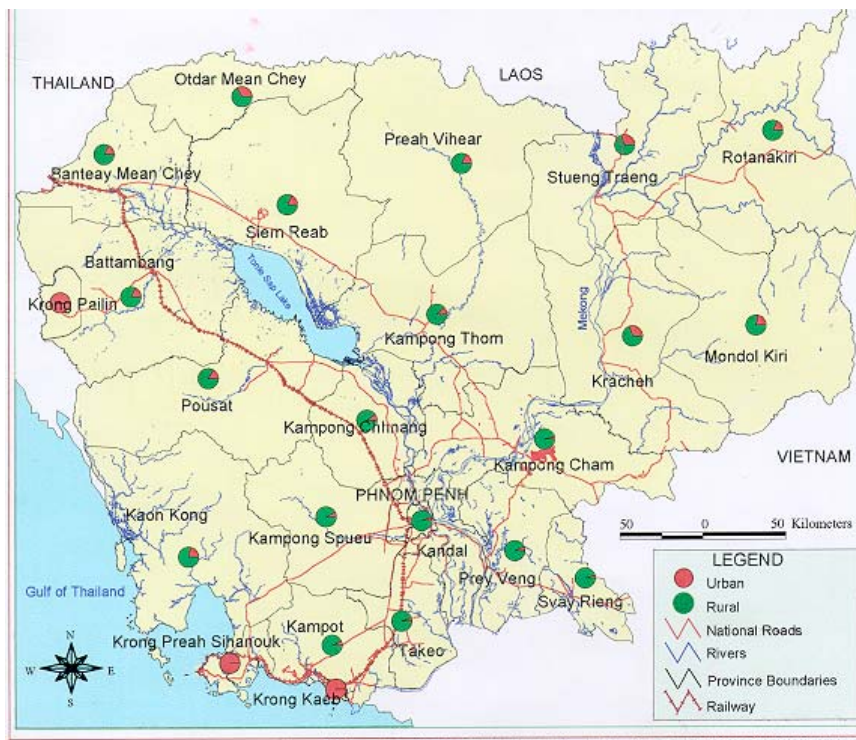
2. 출장자, 지역, 기간

2.1. 출장자 및 출장기간

-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아시아농업연구센터 허 장 연구위원
- 2009. 2. 14 ~ 2. 20(5박 7일)

2.2. 출장지역

- 캄보디아 프놈펜, 캄푹, 시아누크빌, 캄푹 스푸, 칸달, 캄푹참 등



3. 날짜별 방문기관, 방문지역, 주요 일정

날 짜	방문기관, 지역	일 정
2. 14 (토)	(인천-프놈펜)	(도착)
2. 15 (일)	캄푹 시아누크빌	캄푹 신항 및 시아누크빌 항구 시찰
2. 16 (월)	SCF 사료공장(캄푹 스푸)	공장 준공식 참석 이사 면담
	캄보디아 글로벌 트레이드(프놈펜)	신현태 사장 면담
2. 17 (화)	캄보디아 옥수수연구소, 국제 옥수수재단 실험농장(칸달)	현지 관리자 면담
	사료공장(캄푹 슈낭)	CP 그룹 부사장, 홍보담당자 면담
2. 18 (수)	MH Bio Energy 카사바 저장 창고(칸달)	담당자 면담
	TTY 공장(캄푹참)	공장 견학
2. 19 (목)	캄보디아 글로벌 트레이드 사(프놈펜-인천)	신현태 사장 면담, 출장결과 정리(귀국 출발)
2. 20 (금)	(프놈펜-인천)	(도착)

4. 주요 내용

4.1. 배경 현황

4.1.1. 인문 및 자연지리 현황

- 국토 전체면적은 181,035km²
 - 한반도의 약 80%, 남한면적의 약 1.8배
 - 이 중 20%가 경작지
 - 3면이 산맥, 중부는 Tonle Sap(톤레삽)대호수와 여러 개의 강이 분포한 평야지대
 - 수자원의 경우 캄보디아 전면적의 86%가 메콩강의 유역면적에 포함

- 기후는 열대몬순기후로 우기와 건기가分明함.
 - 5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우기, 11월부터 3월까지 건기
 - 연평균 강수량은 중부평야지대는 1,400mm이고, 산악지대와 해안지대는 3,800mm
 - 지역별 강수량(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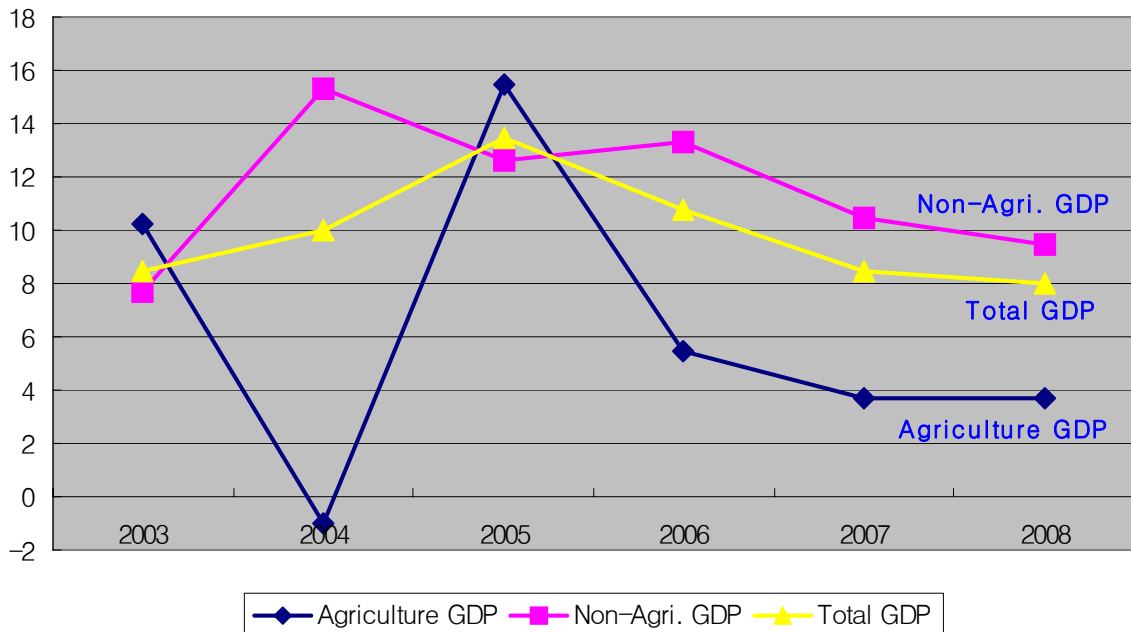
지 역	2007	2006	지 역	2007	2006
Pochentong	1,330.5	1,188.5	Phnom Phen-Basak	1,336.1	2,695.7
Banteay Mean Chey	1,189.8	1,395.1	Preah Vihear	1,570.7	1,455.3
Battambang	1,242.1	1,318.4	Prey Veng	1,040.0	1,024.6
Kampong Cham	1,549.4	1,756.4	Pursat	1,639.0	1,403.4
Kampong Chhnang	1,667.9	1,102.1	Rotanakiri	1,196.5	2,099.1
Kampong Speu	1,337.8	1,093.7	Siem Reap	1,260.2	1,042.7
Kampong Thom	1,173.4	1,643.5	Prah Sihanouk Town	1,630.9	1,017.7
Kampot	1,295.5	1,249.3	Stueng Treng	1,207.9	3,189.4
Kandal	1,137.2	2,085.4	Svay Rieng	3,422.9	5,855.9
Koh Kong	2,980.0	4,322.1	Takeo	1,444.3	1,321.5
Kratie	1,240.6	1,777.2	평 균	1,518.7	1,906.5

○ 연평균 기온은 27°C이며, 12월과 1월이 가장 서늘하고 3월과 4월이 가장 고온다습

- 인구는 13,327,946만명, 인구밀도는 72명/km²
 - 농촌인구 85% 차지

4.1.2. 경제 일반

- GDP는 86억불(4.825십억불? Sokharom), 1인당 GDP는 600불(339? Sokharom)
 - 1차산업 77.5%, 2차 4.3%, 3차 18.2%
 - 연간 GDP 성장률 7%(?)
 - 실업률 2.9%
 - 산업별 GDP 성장(2000년 불변가격)



자료: EIC, Cambodia Economic Watch, 2007. 10

- 경제성장 정책
 - 캄보디아는 2001년부터 제2차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국가기능의 재건에 중점을 두면서 농업을 포함한 각 분야의 성장을 유

도하고 빈곤을 퇴치하는 것임

- 캄보디아는 1999년에 ASEAN에 가입함으로써 ASEAN 내 자유무역으로 2010년 까지 각국의 수출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0~5%로 낮아지고 2018년에는 수입관세가 철폐될 예정

4.1.3. 공공 인프라

□ 도로, 항만 등 공공인프라가 열악함.

- 사회간접자본 분야 개발은 가속화 되고 있으나, 투자 미비
- 총 도로망은 3만 268km이며, 고속도로는 없고 비포장도로가 1만 8,958km(63%)로 포장밀도가 낮음.
 - 프놈펜에서 뻗어나가는 7개의 국도는 2차선에 60~70%만 포장
 - 외국의 지원으로 국도 포장공사가 진행 중
- 2003년 화물운송은 도로 69%, 철도 10%, 내륙수로 20%로 철도 비중이 낮음
 - 철도는 시아누크빌에서 프놈펜을 거쳐 태국 국경으로 연결되는 총 650km의 단선만 설치

□ 항만 현황

- 캄푹 신항
 - 프놈펜으로부터 약 250km 거리(3시간 정도 소요)에 있으며 도로는 일부 비포장에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교량(목재)은 대형차량이 지날 수 없음.
 - 3~5년 이후 실질적인 항구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접근도로를 공사 중임.
 - 캄푹에서 시아누크빌 항구까지의 도로상태는 양호함.
- 시아누크빌 항
 - 캄보디아의 유일한 무역항으로서 프놈펜으로부터 약 350km 떨어진 곳에 위치
 - 12,000톤까지 접안 가능하며 선하적은 대부분 화물용 컨테이너 이용
 -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경우, 시아누크빌을 경유 프놈펜내항으로 갈 경우 14~15일 소요, 호치민 경유시 13~14일 소요
 - 수심 얕아 소형선박으로 싱가포르까지 운송후 환적하는 경우 있음
 - 국가간 교역을 위한 물량 부족으로 벌크선 운항은 없는 상황이나 캄보디아의 도

로 및 교량 등 건설수요가 급증해 최근 태국 등으로부터 시멘트가 벌크형태로 반입되고 있음을 볼 때 동 항구를 이용한 벌크운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4.2. 농업, 농촌 현황

4.2.1 농업 생산, 농지 및 유통

□ 농업의 거시경제적 개황

- 농업은 GDP의 거의 절반
- 농업 성장률은 최근 둔화되는 경향
 - 쌀 이외의 작물과 축산부문의 성장이 높은 편임.

농업내 부문별 성장률 추이 (% 증가율, 2000 불변가격)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쌀	22.3	-12.2	43.6	1.0	1.0	2.4
기타 작물	21.5	9.5	12.4	10.6	8.2	6.7
축산	5.7	3.9	5.6	8.2	7.5	6.6
수산	1.7	-1.7	5.6	3.8	0.8	0.8
고무 및 임업	-3.8	-0.3	3.5	6.6	1.3	1.2
총 농업	10.2	-1.0	15.5	5.5	3.7	3.7

자료: EIC, 「Cambodia Economic Watch」, 2007.10. 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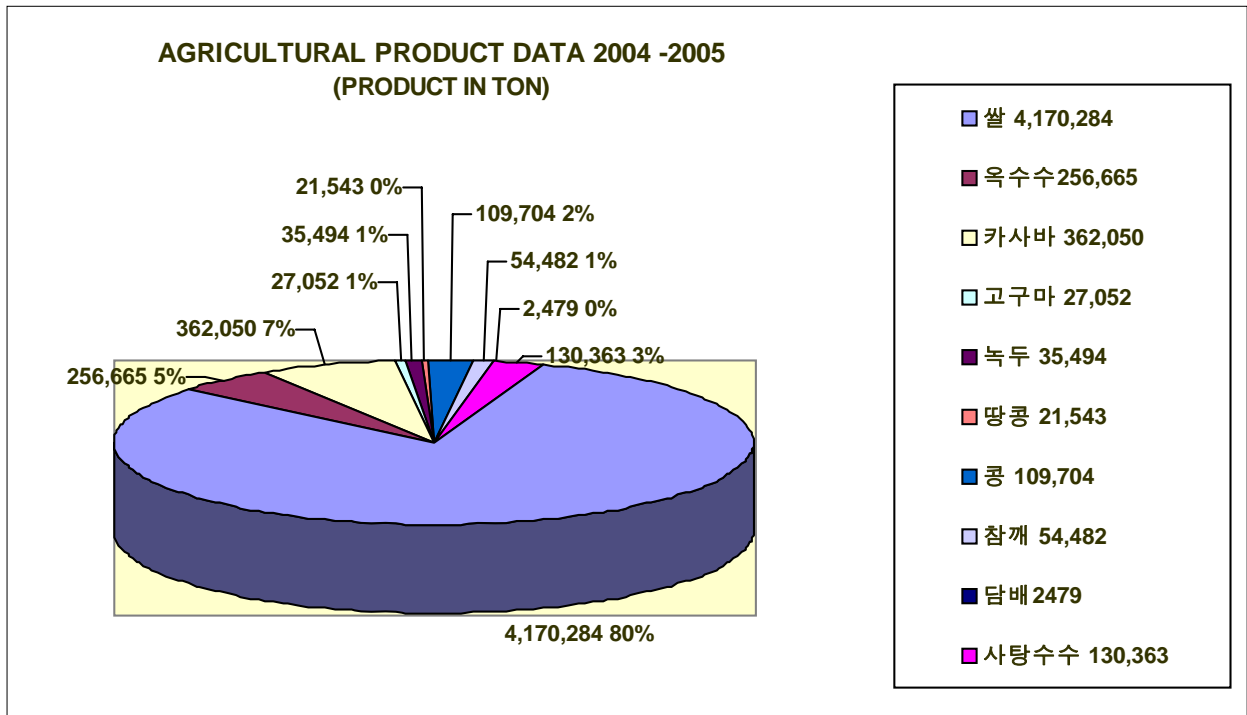
□ 농업생산

작물별 재배면적

구 분	면적(1,000ha)	구 분	면적(1,000ha)
쌀	1,924.0	카사바	12.4
옥수수	45.0	고구마	9.4
야채	39.2	땅콩	9.0
녹두	25.2	참깨	8.3
콩	16.2	사탕수수= 감자	7.4
담배	13.4	황마	0.9

- 쌀은 연간 400만톤 가량을 생산

생산 현황(2004~2005)



- 관개시설의 부족으로 대부분 1모작에 불과하여 생산성은 크게 떨어짐.
- 주요작물 생산성
 - 쌀 : 3톤/ha/1기작(년 3.5모작 가능, \$190/톤 : 2008년)
 - 옥수수 : 3~5톤/ha/1기작
 - 타피오카 : 40톤/ha (에탄올 6톤, \$650/에탄올 1톤)
- 지역별로는 타케오와 칸달, 프레벵, 스페이리엥 등 수도인 프놈펜 인근이 높은 농업 부가가치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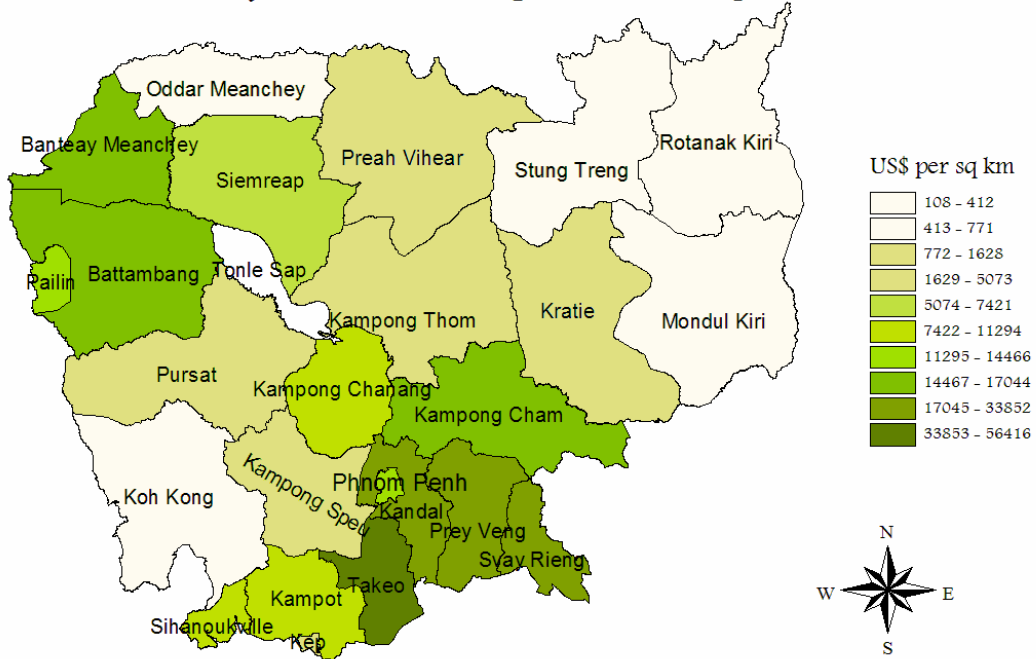
□ 농지

- 농지는 소규모로 분화되어 1ha 미만 가구가 전체의 60%에 가까움.

면 적(ha)	가구 비율(%)
무토지	18.7
> 0 - 0.5	27.3
> 0.5 - 1	22.1
> 1 - 1.5	11.1
> 1.5 - 2	8.3
> 2 - 2.5	3.7
> 2.5 - 3	3.3
> 3	5.6

지역별 단위면적당 농업생산액

Monetary Value of Main Agricultural Output



○ 관개시설 면적은 매우 적어서 전체 농지면적 중 약 5%에 불과함.

캄보디아 토지제도 개관

- 지난 40여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토지사용 및 소유제도가 변화하여 혼란과 갈등 초래
- 1975 크메르 루주가 정권을 잡으면서 토지 국유화
- 1979-89 캄보디아 인민공화국 하 토지는 여전히 집단 소유(collective ownership)
- 1989 초 베트남군 철수 이후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새 헌법, 토지개혁 및 토지법(1989~1993 캄보디아 국(State of Cambodia) 시절)
 - 1989 헌법채택 직전 부령(sub-decree no.25)를 통해 집단소유지를 재분배하고 사유권 확립
 - 정책 시행 이전 최소한 1년 전까지 토지를 사용하고 경작한 크메르 시민만 토지권리 가질 수 있음.
 - 거주지에 대한 소유권(ownership right, 2,000m² 한도), 5ha 미만 경작지 점유권(possesion right), 5ha 이상 플란테이션 농지에 대한 사용권(economic concession right) 인정
 - 구 정권에서의 토지소유는 식민지 시대부터의 공식적 토지소유권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고, 가구의 규모와 기타 가구별 특성에 따른 기준에 의거, 토지분배함.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는 매우 평등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토지대장부(Department of Land Titles)를 설립하여 등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폭주하는 신청서를 제때에 처리할 능력이 없어 1989 토지분배 정책이 제대로 문서화하지 못하였음.

○ 1992 토지법 통과

- 공식적으로 1989 토지분배 정책을 완성시킴.

- 토지점유권에서 토지소유권을 얻으려면

. 점유자가 적어도 5년간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 지방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함

○ 1993 캄보디아 왕국

- 캄보디아 국민만 토지소유할 수 있다는 것 재확인함.

- 그러나 1992 토지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드러나기 시작

. 점유권만으로 토지 소유권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여기에 1989~1992 기간에 소유와 점유권에 관한 문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토지침탈(land grabbing)과 권력남용 횡행(특히 프놈펜 지역)

. 국가재산 및 소유자가 없는(강요에 의해서이건 아니건) 사유재산 침탈, 소유, 매각

. 1992 법률은 졸부탄생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전략

○ 2001. 8 새 법률 통과

- 1992 법률의 약점을 보완, 법률 통과 시점에 5년 보유조건을 완료한 사람만 법적 소유권 인정

- 1992 법률 통과 이전에 이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소유권을 얻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함.

- 그 대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temporary possession), 사회적 사용권(social concession)을 인정

. 경제적 사용권(economic concession)은 대기업에게 주어진 반면, 사회적 사용권은 거주 혹은 생존 목적의 영농을 위한 소규모 땅을 무료로 신청(apply)할 수 있게 한 것임.

- 아울러 전국적이고 보다 간단한 토지대장 등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하지만 아직도 법적, 제도적 틀은 취약하며 토지분쟁이 빈번하고 소수만이 공식적으로 토지소유권을 등록하고 있음.

○ 이러한 혼란의 과정을 거쳐 현재 캄보디아 국토의 80% 정도는 정부 소유이며, 이 중 15% 정도만이 정부에 등록되어 있다고 함.

(Anders Engvall and Ari Kokko, "Poverty and Land Policy in Cambodia"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Working Paper 233, June 2007에서 정리)

□ 저장, 가공

○ 체계적인 도매시장 미형성, 집하·저장·유통 등의 시스템이 없음.

○ 쌀 등 원곡을 태국, 베트남에 수출하고 가공품을 다시 수입하는 형태

- 농민은 원곡의 상업적 도정업자 또는 수집상에게 판매하고 수집상이 이를 수출
- 캄보디아 내 도정, 가공시설이 없어서 부가가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 캄보디아의 농업은 관개, 저장 및 가공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 생산기술 낙후, 기계화 부족, 경작규모 영세 등으로 농업개발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필요함.

4.2.2. 옥수수

□ 옥수수 생산

○ 옥수수 생산 지역

- 옥수수 주산지역은 북서부의 바탐방, 파일린, 반테이 미엔체이, 남동부의 칸달, 캄퐁참 주임.
- 하지만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지(유희지 포함)의 다기작 활용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옥수수 재배지는 대체로 메콩강 혹은 톤레삽 호수로 흐르는 강변을 따라 펼쳐져 있음.

○ 캄보디아 전체적으로 옥수수 생산량의 약 80% 이상이 사료용으로 쓰임.

지역별 건기·우기별 옥수수 생산동향

장 소	경작지(ha)			수확면적 (ha)	생산성 (ton/ha)	생산량 (ton)
	우기	건기	총계			
Phnom Penh	132	179	311	311	1.466	456
Kandal	10,681	3,688	14,369	10,231	1.914	19,581
Kampong Cham	4,634	554	5,188	5,182	1.347	6,981
Svay Rieng	25	2	27	27	2.407	65
Prey Veng	2,078	93	2,171	2,168	2.550	5,528
Takeo	207	207	223	208	1.639	341
Kampong Thum	434	12	446	384	2.029	779
Siem Reap	524	487	1,011	1,011	1.887	1,908
Battambang	44,710	265	44,975	35,874	4.322	155,030
Banteay Meanchey	4,538	109	4,647	4,647	2.257	10,489
Pursat	326	36	362	362	2.000	724
Kampong Chhnang	922	344	1,266	1,266	1.359	1,720
Sihanouk Ville	54	0	54	54	2.000	108
Kep	50	70	12	120	0.942	113

Kampot	1,899	19	1,918	1,734	1.546	2,681
Koh Kong	79	0	79	76	3.342	254
Kampong Speu	446	0	446	335	1.531	513
Preah Vihear	727	0	727	727	1.600	1,163
Stung Treng	590	0	590	590	0.800	472
Ratanakirii	230	0	230	230	2.800	644
Mondl Kiri	434	0	434	391	1.350	528
Kratie	1,240	271	1,511	1,511	1.877	2,836
Uddor Meanchey	203	15	216	218	1.821	397
Pailin	9,880	0	9,880	9,647	4.494	43,354
Total	91,203	85,043	6,160	77,304	3.320	256,665

□ 옥수수 생산성

- 건조된 옥수수(수분함량 14%)의 단위생산량은 3~4톤/ha
- 옥수수 종자로는 태국, 베트남 종자를 사용
 - 국제옥수수재단(ICF)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옥수수연구소 부지 40ha중 8ha를 무상임차 받아 옥수수 종자 시험재배지로 사용하면서 종자개발에 힘쓰고 있음.
 - 동 시험재배에서는 ha당 6톤~7.5톤(건조후 14% 함수율인 경우 알곡만)에 3개월 만에 수확하는 품종을 개발하고 있음.

□ 옥수수 건조시설

- 캄보디아는 쌀 다음으로 옥수수 생산이 많지만 저장 및 건조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품질문제가 있음.
- 농가에서는 옥수수를 자연상태로 관리하므로 곰팡이(아플라톡신) 피해가 많으며, 하급품은 물고기나 돼지 사료용으로 판매
- 기존에 조사된 몇 곳의 옥수수 건조장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 치	캄퐁 스푸(프놈펜에서 20분 거리)	반티에 미엔제이	칸달
소 유	태국인 CP 그룹(1995년 설립)	캄보디아, 태국 공동 투자(2004년 설립)	캄보디아인 꾸이떡쓰 룬사(2003년 설립)
생산량	월평균 15천톤	연 8천톤	1일 100톤 정도
건조방식	반자동, 옥수수 공이	화력건조	반자동 화력건조(옥수

	를 태워서 알곡 건조		수 공이 사용)와 자연 건조 병행
옥수수 확보	수매, 계약재배 (톤당 110불 지급)	수매, 계약재배 (톤당 160불 지급)	캄퐁참에서 7월(건기 재배)에, 바탐방에서 12월(우기재배)에 수매 (톤당 115불)
판매, 유통	사료공장, 시장유통 및 태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	전량 태국 수출, 바이오연료로 이용	CP 그룹에 납품

○ 옥수수의 수집, 건조, 유통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거침.

- 농가 내 자연건조(함수율 30% 정도까지) → 수매(약 40kg 규모의 포대 사용) → 건조장 내 탈곡(자동 혹은 수동) → 알곡 상태에서 화력건조(함수율 14% 정도까지 낮춤) → 사료회사 납품 혹은 외국 수출

<p>□ 한국의 SCF (신촌사료)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이사회 결정, 2007년에 법인을 설립 - 250만 불의 자본금에 12만 m²로 시작 - 두 차례 증자, 현재 자본금은 700만 불 - 2008.2.15 착공식, 부지는 124,478 m² 로 함. - 설비: 생산능력 16시간 근무시 500톤, 월 1만톤, 연 12만 톤 목표 - 가공(배합)사료 위주 생산 post grinding system, computer factory-automatic system - 사료, 종자, 사육관리를 포함하기를 지향 - 상원축산에서 종돈 공급을 위하여 동반진출 중임. - 2010년 한국 종계장을 유치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특수 양어사료를 생산할 예정 - 캄보디아 축산대학과 연계할 예정 - 내수용 사료생산이며 수출은 생각하지 않음

<p>□ 태국계 CP 공장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 설립, 월 15,000톤 생산능력이며 현재 12,000톤 생산(펠릿) ○ 닭, 돼지, 물고기용 사료용 생산 ○ 수출은 하지 않음 ○ 6개의 4천 톤 수용능력이 있는 사일로를 가지고 있고, 건조시설은 시간당 70톤을 건조 ○ 바탐방에 월 5천 톤 생산능력의 공장이 곧 가동할 예정
--

4.2.3. 카사바(타피오카)

□ 카사바 가공에 대한 한국의 진출

- 카사바는 옥수수과 더불어 쌀 다음으로 중요한 농산물임.
- 한국계 MH Bio-Energy가 현재 타피오카를 생산중에 있음.

□ MH Bio-Energy 사례

○ 위치

- Kandal지역 농장 및 전분공장(프놈펜에서 90km 거리)
- 프놈펜인근 Ethanol공장(프놈펜에서 20km 거리)

○ 농장 설립

- 1999년과 2001년, CJ와 MH Bio(무학)가 국유지 8,000ha를 불하받아 50:50 합작으로 농장/전분공장을 투자(ha당 임차료 100불)
- 2년 전에 중단된 뒤 2008 MH Bio-Energy는 CJ지분을 인수하여 100% 자회사로 재탄생

○ 농장운영

- 총 8,000ha중 3,000ha는 개간을 완료, 2009년에는 3,000ha 전체에 카사바 경작(현재는 300ha에 식재)
- 나머지 5,000ha는 현재 개간중이며, 약 3년 이후 경작가능

○ 에탄올 공장

- 현재 설비는 연간 5만톤 규모이나 추후 10만톤까지 증설할 예정(현재 시험가동 중)
- 액체상태로 유럽에 수출
- 8,000ha에서의 카사바로는 바이오에탄올 공장의 원자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추가적으로 위탁계약 방식으로 카사바 확보를 추진

4.3. 캄보디아의 법령과 제도

4.3.1. 캄보디아 투자법

□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

- 캄보디아 국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투자자(내국인과 외국인)에 의한 투자계획과 관련된되며, 투자자는 개인이나 법인체가 될 수 있음
 - 투자자는 캄보디아의 헌법에 명시된 토지의 소유권을 제외하고는 내국인, 외국인 차별을 받지 않음(투자법 제8조).

-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에 있는 투자자의 사적재산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유화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격통제 정책은 추진되지 않음(투자법 제9, 10조).
 - 과실송금에 대한 자유도 보장하는 투자보장책을 도입하고 있음(투자법 제11조).
 - . 대금지급과 국제금융 조달자금의 원리금 상환
 - . 로열티와 관리비 지급
 - . 이윤송금
 - . 적법절차에 의거, 투자 철회시 투자 자본금 반출
 - 국내에서 기술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엔 외국으로부터 고급인력 고용도 가능
 - . 공인된 중개기관을 통하는 한 자회사, 지사 등 외국법인의 송금, 투자 등에 대한 제한이 없음(단 10만 불 이상 송금, 투자시 신고).
 - 투자보장 이외에 인센티브로는 사업개시기간부터 3년간 법인세를 감면하고 그 밖에 관세감면, 비자 및 고용 등에서 혜택이 있음. (아래 세법 분야 참조)
 - 투자를 장려하는 분야는 첨단기술 산업, 고용창출, 수출지향성 산업, 관광산업, 농업관련 산업 및 변화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에너지 산업, 지역 및 농촌개발, 환경 보호, 법으로 명시될 특별진흥지역(SPZ) 등임(투자법 제12조)
- 캄보디아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는 투자활동과 관련된 유일한 조직이며,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복구작업, 개발과 투자유치 활동을 책임진 정부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개발계획과 정책입안의 준비를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도
 - 국제사회, 양 당사국, 국제조직, NGO 등과 협조하여 그들이 캄보디아의 경제환경과 개발계획을 이해하도록 하여 국제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활동
 - 정부부처간의 활동과 원조국 및 투자자가 행정기관과 협의시 최대한의 편의 제공
 - 캄보디아 개발과정에 필요한 공공 및 민간자원 이용안내와 편의 제공
 - 행정절차의 편의제공과 간소화를 통한 원조국과 투자가에의 협조
 - 복구, 개발 및 민간 사업부분의 투자에 관련된 서비스 업무 검토 및 결정
- CDC 산하 실무기관
-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ambodian Investment Board, CIB): 민간부문 담당
 - 캄보디아 복구개발위원회(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CRDB): 공공투자와 국제지원 부문 담당

□ 투자절차

- 50만 불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CDC의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 투자 계획서를 제출
 - CDC는 CRC에 기재된 모든 관련부처로부터 허가취득을 대행함.
 - 완성된 투자계획서 제출 후 45일 이내에 CDC는 투자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결정 결과를 반드시 통보(투자법 제7조)
 - 100% 단독출자회사, 합작회사, BOO(Build, Own, Operate), BOT(Build, Operate, Transfer) 등 모두 가능

회사의 형태

1. 일반 합작회사(general partnership) : 2인 이상의 무한책임 파트너가 공동으로 사업하며 지분양도는 파트너 전원의 동의가 필요. 우리나라의 합명회사와 유사
2. 제한 합작회사(limited partnership) : 무한책임 파트너와 유한책임 파트너로 구성되며 유한책임 파트너는 자유로이 지분양도 가능. 우리나라의 합자회사와 유사
3. 개인 제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 30명 이내의 소수 주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의 유한회사와 유사
4. 공공 제한회사(public limited company) : 우리의 주식회사와 유사. 최소자본금은 액면 4천 리엘이상, 1천주 이상

출처: 차지훈, 캄보디아 투자법제 해설, 2007. 6.

□ 외국기업의 형태

- 외국기업은 “상업규칙 및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여야 함.
- . 대표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 본사를 대신하여 시장조사, 고객접촉, 계약체결 등을 할 수 있으나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는 할 수 없음.
- . 지사: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업무가 가능하며, 지사의 자산은 본사에 귀속하고 본사는 지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 자회사: 캄보디아 내에 설립되는 회사로서 외국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함. 본사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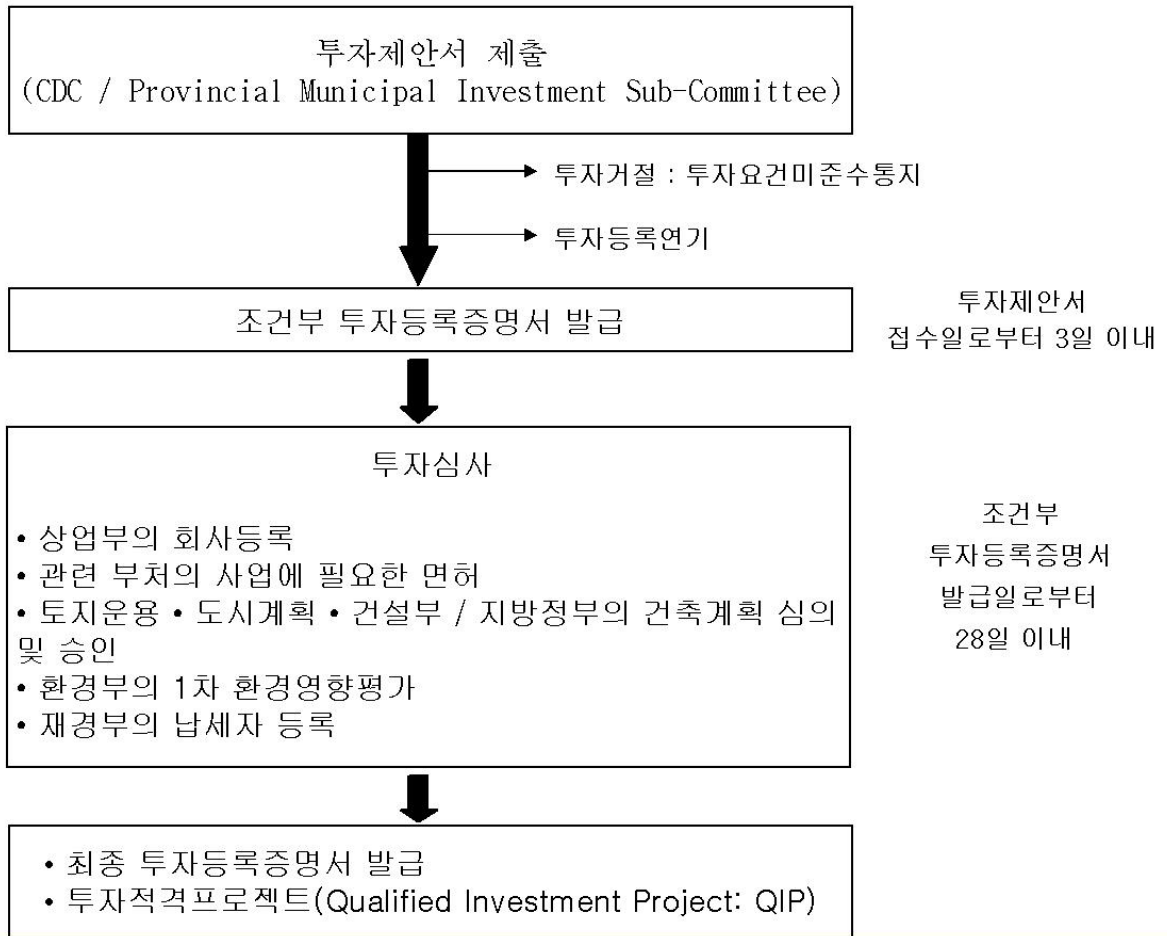
출처: 차지훈, 캄보디아 투자법제 해설, 2007. 6.

- 합작회사의 경우에도 내·외국인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높은 개방정도, 낮은 청렴도

- 캄보디아의 개방정도(재정적자, 제도적 규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무역정책의 효율성 등에 대한 지수)는 저개발국 가운데 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03년 Heritage Foundation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170개 국 중 35위 (태국 40위, 말레이시아 72위, 인도네시아 99위, 베트남 135위, 라오스 153위)

투자등록 : 윈스톱 서비스 (출처: 차지훈, 캄보디아 투자법제 해설, 2007. 6)



-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는 공공부문에서의 도덕적 부패임.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05)에 따르면 117개국 중 공공기관지수는 114위

4.3.2. 토지법

- 외국인의 농업투자과 관련한 주요 법률
 - 캄보디아내의 토지소유권은 캄보디아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체로 국한(제8조)
 - 캄보디아에 등록된 기업으로서 주식의 51% 이상이 캄보디아인 또는 캄보디아 법에 따른 캄보디아 법인체가 소유한 기업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제9조)
 - 공업, 농업 등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목적의 토지사용권(economic concession) 취득을 통해 이루어짐.

- 사용권 취득은 해당기관에서 발행된 문서를 갖추고 토지운영·도시계획·건설부에 등록
 - . 토지운영·도시계획·건설부 등기는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이 표기된 토지등기부, 토지 위치 및 토지용도가 표기된 지적도(cadastral index map)를 중앙 및 각 행정구역에 있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임.
- 국유지만 가능함.
- 토지사용권은 10,000ha를 초과할 수 없음(제59조).
- 사용권의 발부 이후 12개월 내에 개발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토지사용권이 취소(제62조)
 - 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음.
- 토지법(제61조)에서는 사용권은 99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투자법에는 70년까지 장기임대를 명시(제16조 제2항)(그러나 통상적으로 70년간)

4.3.3. 세법 관련 제도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 법인세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통상 평균 20%(Standard profit tax rate)의 평균세율을 적용받음.
 - 2003년 투자법 개정 이전까지는 캄보디아개발위원회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으면 법인세율은 20%에서 9%로 낮아지며, 사업 성격과 우선순위에 따라 8년간 면제 받을 수 있었음. 2003년 개정 이후에는 9% 특별세율이 폐지되었고, 수익 재투자의 경우 법인세를 면제하던 제도도 폐지되었음.
 - 외국인투자법 제14조에는 투자의 배당, 이윤 또는 수익의 분배를 해외 송금, 국내에 배분 상관없이 비과세로 규정
 - 건축자재, 생산수단, 기계류, 중간재,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수입 및 수출세 모두 면제, 특히 수입관세 경우 농업은 면제 대상 분야임.
 - CDC가 승인한 프로젝트성 수입
 - 살충제 등 농약, 농업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 (트랙터 제외) 등 수입관세 면제
 - 생산된 재화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매달 영업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나, 1차 생산자가 판매하는 농업생산물은 비과세

-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투자하고, 이후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비과세로 분류됨.